

서대문구 학교 발전을 위한

안산초 학부모 소통 간담회

〈간담회 개요〉

- ▶ 명 칭 : 서대문구 학교 발전을 위한 안산초 학부모 소통 간담회
- ▶ 일 시 : 2022. 6. 23.(목) 10:30 ~ 11:50
-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 ▶ 참석자 : 11명
 - 간담회 주재 : 이경선 의원
 - 참여 의원 : 2명 (정지웅 시의원 당선인, 강민하 구의원 당선인)
 - 참여 학부모 : 4명
 - 참여 직원 : 2명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 참석 기자 : 2명

회 의 록 [요약]

(10:30 간담회 시작)

(이○○ 의원) 서대문구 학교 발전을 위한 안산초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지역의 학교 관련 현안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 당선인과 구의원 당선인이 함께하여 안산초 학부모님들과 함께 현재 현안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관련하여 안산초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지난 4월 28일 개최하였었습니다. 그린스마트 철회 안을 제안한 이유는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평가 중 정량평가에 하자와 정성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점,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수요조사 제출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부재했던 점, 셋째, 재학생 학부모 과반 수 이상이 철회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의 안전점검 현황이 C등급으로 표기 되었으나 실제로는 B등급이라 개축대상이 아님. 따라서 개축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안전을 챙기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현재 본교 재학생 학부모 과반 수 이상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 자필 서명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 당선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우리 학생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좋으나, 그 사업을 통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임. 시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 없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강○○ 당선인) 구의원이기 전에 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교 관련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산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하여 안산초, 서부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담당자분들과 통화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모두 듣고 왔습니다. 서울 교육청 담당자에게 듣기로 안산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 지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곧 철회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배부하여 안산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알릴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저희 측에서도 학교로 공문이 배부되면, 확인하는 데로 학부모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학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철회가 이루어진 것임.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고, 향후에 다른 문제들도 시와 구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음.

(학부모 1) 최근 안산초등학교 운동장을 조기축구회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음. 우리 학부모들은 극심하게 반대하는 입장임.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진입하면 관리가 매우 힘들어짐. 음주, 담배꽂초, 불법 몰카 설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 의원) 고운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동장에 트랙을 설치하여 운동장 공간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생활체육인들이 운동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이며, 학교나 다른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그 장소의 주체를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관리, 사용하는 것도 문제임. 안산초가 조기축구회의 장소로 언급되는 것은 운동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주차 공간 확보가 원활하고, 주택가와 떨어져있는 특성 때문에 소음문제도 덜하기 때문일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에 한번 확인해보겠음.

(학부모 2) 학생들의 안전보다 생활체육인들이 본인들의 편의성만 주장하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한 상황임. 학부모들은 현재까지 운동장 사용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이○○ 의원) 생활체육인들이 갈수 있는 곳이 매우 적고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임. 북아현, 천연, 홍은동에는 체육시설이 이미 있거나 들어올 예정이지만, 홍제동에는 전무한 상황임.

(학부모 1) 굳이 학교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체납, 투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다른 시설을 활용,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음.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시설로 남겨졌으면 좋겠음.

(이○○ 의원)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복합시설 등을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게끔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생활체육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겠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음.

(학부모 1) 안산초의 시설복지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아직 화장실에는 화변기,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임. 예산이 부족해서 담벼락에 벽화조차도 없음.

(이○○ 의원) 시의원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시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

(학부모 1) 방진막도 필요함. 안산초 옆의 재건축 아파트로 인하여 미세먼지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의원) 방진막 관련은 안전치수와 등을 통하여 현재 안산초 옆의 아파트 건축이 실제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학부모 2) 이외에도 하교 길에 학원 자동차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문제도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교통과 등과 함께 논의해볼 것입니다.

(강○○ 당선인) 앞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들에 대하여 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답답함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당선인)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 부서에 접촉하여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본인이 교육관련 상임위에 속하지 않게 되더라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의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수시로 점검하고 찾아가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자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1:50 간담회 종료)